



김 영 옥

(한국돼지질병연구회 회장)

양돈인들은 돈복(豚福)을 타고 났는가 싶다. 다른 축산업종이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친 지난 '85년을 웃으며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돈복(豚福)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밝아오는 '86년 새해 전망은 솔직이 어떠한가?

상반기는 보장되어 있다고 하니 하반기만 걱정하면 될 것인가?

'86년은 「아세안게임」이 있는 해이다. 거기에 조금은 희망을 걸어보고픈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양돈인들은 호황, 불황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원가와외의 싸움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호황, 불황은 복꿀복이고, 지난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품질 좋고, 값싸게 만들어 내기만 하면 돈복은 타고난 우리

라는 결론을 이미 얻었지 않았는가?

축산, 특히 양돈 성공비법은 ①종자가 좋아야 하고 ②사료가 좋아야 하고 ③시설이 좋아야 하며 ④관리가 좋아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재미를 보고 있지 않은 양돈가가 있다면 이들 중 한 두가지가 잘못되고 있을 것이다.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종자(種子)가 좋아야 함은 백인들과 한국사람의 성장을 비교해 보는 것과 같다.

둘째, 사료가 좋아야 함은 고기먹고 자라는 아이들과 채소만 먹고 자라는 아이들과의 차이 이상이다.

셋째, 시설이 좋아야 함은 결국 사육환경이 좋고, 성력화(省力化)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토질(土質)이 나쁘고, 관리하기 불편한 곳에 심은 곡식은 역시 노력한만큼 수확이 없는 것이다.

넷째, 관리가 좋아야 한다는 것은 기술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종자, 사료, 시설이 있어도 관리를 잘못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병들어 실패하는 것이 농사가 아닌가?

결국 잘 기르는 훌륭한 기술이 있어야 하고, 또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맘흘려 실천하는 정성이 없으면 차라리 기술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그러나 위 네가지 성공비법에는 꼭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있다. 모든 농사가 그렇지만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것으로 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을 깊이 인식하고 일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으로 농사를 짓고, 양돈을 성공적이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란 질병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아무리 농사를 잘지으려 해도, 설혹 잘 지어놓았다 해도 병충해와 태풍 또는 폭우로 모든 것을 잃

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양돈에 있어서 질병피해는 태풍이나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들판처럼 처참할 때가 많다.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돈 콜레라나 전염성 위장염(T·G·E) 등의 심한 피해를 입은 농장은 허망하기 이를데 없다. 병들지 않은 좋은 종자를 골라 써야 하고, 병걸리지 않을 사료(곰팡이 중독, 영양 부족 등)를 먹여야 하고, 병들지 않게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병들지 않도록 위생적 사양관리와 방역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양돈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새해의 치밀한 설계는 지난해 12월에 세워 놓았겠지만 신년의 첫 발을 내딛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양돈의 전제조건을 재점검해 보고, 힘찬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1. 공장의 기계와 같은 모돈과 웅돈들은 병들거나 노화되고, 고장난 곳은 없는가? (비능률적인 기계, 고장난 기계로는 생산성이 떨어져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버텨 나갈 수 없다).

2. 농장의 주역이 될 후보육성돈은 좋은 유전형질을 갖고 있고, 선천적 결함이 없는 돼지이며, 현재 병들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믿음직한가?)

3. 지금 먹이고 있는 사료는 돼지의 건강을 잘 유지시키고, 영양적 결함없는 경제적인 사료인가? (생산원가의 60~70%를 사료가 차지한다. 좋은 사료의 선택이 생산원가를 좌우한다).

4. 돈사시설은 일하기 편하게 되어있으며, 보온과 환기가 잘되고 있어 돼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겨울이라 하여 습막히게 밀폐시

키고, 또 너무 밀사시켜 돼지들이 모두 폐염에 걸려있지 않은가?)

5. 돈 콜레라와 전염성 위장염(TGE)경계 경보가 발효중인데 예방접종은 철저히 했고, 추가 재접종의 필요성은 없는가? (위축자돈은 면역형성 능력이 나쁘기 때문에 돈 콜레라 백신을 1차 30~40일령에 놓고, 건강이 회복되는 40~50일령에 재접종을 해준후 60~70일령에 다른 건강돈들과 같이 돈 콜레라와 돈단독 백신을 해주어야 한다. 또 임신모돈의 'TGE' 백신은 분만 5주전과 2주전에 1,2차를 완료했다라도, 면역상태를 조사해 보면 면역이 잘 안되어 면역가(免疫價)가 낮은 돼지들이 있다. 그래서 면역가를 더욱 높혀 줄 필요가 있으므로 분만하기 5~7일전에 보강접종을 해 주는 것이 위험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한 방법이다. 특히 초산(1산차) 돼지는 꼭 보강접종을 해주도록 권하고 싶다.)

6. 호흡기질병이 심한 돈사에서 소독은 매일 2~3회 실시하고 있는가? (소독약을 잘 선택하고, 소독액물의 온도는 50~70℃로 올려서 하고, 호흡기질병 다발돈사는 소독액의 농도를 지시농도의 2배로 써야한다. 먼지 한개에 세균이 4~11개씩이나 붙어 있으므로 공기중의 먼지와 세균을 동시에 없앤다는 생각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소독액의 분무량은 돼지가 있을때는 바닥면적 1m² 당 100~150cc를 뿌리고, 빈돈사는 2ℓ(2,000cc) 정도를 최소한 뿌려야 한다.)

7. 출하돈이 경매장에서 높은 값을 받는 육질이 좋은 상품인가? (최종적으로 돼지 농사를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는 도살장의 경매가격이 말해준다. 남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으면 받은만큼 이익이 커지고, 덜 받으면 덜 받는만큼

**양돈에 있어서 질병피해는 태풍이나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들판처럼 처
참할 때가 많다.**

손해도 나고,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경쟁이 점차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차이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 부가가치를 창조해내지 않고, 생산원가만 낮게 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다.)

실패는 작은 첫점 하나에서 시작된다. 즉, 질병예방의 성패도 첫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난다.

고, 능력(경쟁력) (예, 기술, 자본력)에 맞게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투자와 설계를 하였고 또 할려고 하는가? (어떠한 경우라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그 농장은 영속성을 갖는다. 농사는 투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 사업이다.)

8. 만성 소모성 경제성 질병인 호흡기질병 및 장염(예, AR, SEP, 돈적리등 3대 경제성 질병)의 피해와 감염정도는 어떠한가? (이 경제성 질병의 농장별 정도차는 곧 생산원가의 차이와 같다. 이러한 병들이 걸린 돼지로는 건강돈과 경쟁이 되질 않는다.)

새해를 맞으면서 최소한 앞에서 거론한 것들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썼다.

9. 농장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기술정도와 정성의 차이는 생산원가의 차이를 그 인건비 차이의 몇 배로 벌려 놓는다는 것을 아는가? (농사의 결실은 기술과 정성의 복합된 열매이며, 기술과 정성의 차는 생산원가와 최종 상품의 품질과 가격의 차로 나타나 조그만 인건비 차이가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실패는 작은 첫점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질병예방의 성패도 첫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난다. 물론 완벽은 없다.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가야할 길과 일의 순서, 요령을 모르고 죽자사자 달려봐야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10. 양돈가는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

이 칼럼을 통하여 미려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

독자투고안내

월간 「양돈」지는 양돈인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없으시다면 본지 기사를 불러 주십시오. 현지 취재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관심 뿐입니다. 아무쪼록 알찬 양돈 전문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구태여 무손글을 보내달라고 못을 박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양돈업을 경영해 오시면서 터득한 새로운 기술정보나 소득정보 또는 성공담, 실패담, 임상수기, 건의사항, 양돈기술상담, 세무상담, 지부소식등 어떤 내용이던지 좋습니다. 도저히 바쁘셔서 원고 쓸시간이

채택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지불하겠습니다.